

연애와 결혼에 대한 단상(斷想)

20170709 김성은 전도사

■ 서언

- * “단상(斷想)” ▶ 연애와 결혼이라는 광범위한 영역을 한 번에 설명할 수는 없기에, 경험을 토대로 한 단편적 생각.
- * 연애와 결혼에 정도(正道)와 정답(正答)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각자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 선택 :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 *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신 천생연분(天生緣分)?

흔히들 말하는 “운명의 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짝을 미리 정해서 결혼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의 영역을 축소시키지 말라.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특정 누군가와 결혼까지 골인시키시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이며, 그에 따른 책임도 나의 몫이다.

(고전 7:39)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 *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 대하여

‘무엇을, 왜 기도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직면해보라. 상대가 누구든 정말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상대를 만나기 위한 것인지를 분간하라. 외모, 직장 등 구체적인 이상형을 정해 놓고 그에 맞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탐욕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

(약 4: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 * 남친/여친 선택의 기준?

자신만의 선택의 기준을 한 두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 것도 좋다. (많으면 ...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없을수도) 다만 기독교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경건한 남자’ 그리고 ‘경건한 여자’를 만나면 좋겠다는 것이다. 종교적 끈대 같은 발상일 수는 있으나 ... 어쩔 수 없다. 연애와 결혼은 ‘선교’가 아니다. 물론 좋은 사례도 존재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다. 그 과정 가운데 부딪치는 가치관의 갈등은 견뎌낼 수 없는 싸움으로 번지곤 한다.

- * 당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라.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할만한 직장에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당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 매우 소중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을 찾기 이전에, 당신이 먼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라. 그게 먼저다.

(습 3:17)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 과정 : 어떻게 만날 것인가?

- * 진정한 사랑의 기초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의 가장 깊은 의미는,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배려와 희생정신’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당신이 해오던 습관을 버릴 수 있는가? 상대를 위해 포기하고 변화될 수 있는가?

반대로, 상대방은 당신을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사랑’의 감정으로 결점을 덮지 말라.

연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훈련 없이 사랑의 감정으로만 결혼하게 되면, 상대방의 이기적인 생활태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반대로 당신의 이기성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남몰래 눈물 흘릴 수 있다.

(요 15: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 섹스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당신은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다만, 때론 그것을 모른척하고 싶을 뿐이고, 지키기가 매우 힘들 따름이다. 단언컨대 결혼을 벗어난 섹스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간에 ‘선’을 넘여가지 않고자 하는 분명한 약속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허용되는 스킨십의 정도는? 어디까지 괜찮은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 그것은 당신의 양심과 선택에 맡기겠다.

(시 119:9)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롬 12:1)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 성적(性的)인 일탈, 혼외 섹스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워하시거나 구원을 취소하시지 않는다. 공동체의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고, 해서도 안된다. 혼외 섹스보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 우울감에 빠지는 것이 정서적으로 더욱 위험하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거나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진정한 회개의 길,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 만나는 과정이 너무 ‘영적’이지 않아도 된다.

신앙인끼리 만났다면, 상대방의 신앙생활과 습관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꼭 QT한 내용을 나눠야 한다면, 꼭 함께 단둘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쪽이 부담스러워한다면 절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연애는 ‘신앙 교육’이 아니다. 상대방을 내가 옳다고 여기는 신앙생활 방식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된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특정 행위(말씀,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며 느끼는 건강한 에로스적 연애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 건강한 만남을 위한 조언자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만남과 관계를 위하여, 신앙적 연륜과 지혜가 있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누군가에게 연애와 결혼에 대한 조언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좋다. 필요한 경우, 제3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다.

■ 확신 :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 결혼, 반드시 해야 하는가?

[고전 7:8-9]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 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결혼을 각자의 결정에 맡긴다. 물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문화적 · 시대적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변동성이 있는 요소’에 대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진리’는 아니다. // 그런데 분명한건 ... 결혼하면, 좋다!

* ‘그 사람’과의 결혼 확신에 대하여

‘사랑’이라는 연애감정에 빠졌다는 것이 결혼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결혼은 더욱 깊은 의미의 연합이기에 사랑에 빠졌다고 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왜냐면 사랑에 빠진 상태는 곧 그 사람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다소 저하된 상태이며 객관성도 저하된 상태이다. 그것은 곧, 상대의 결점과 미래의 결혼생활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저하된 상태라는 것을 말한다. 게다가 여성은 보통 로맨틱한 이상주의로 인해, 남성은 성적 매력(외모 포함)으로 인해 결혼을 결심하곤 한다. 그것도 결혼을 결심할만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무슨 이유로든 결혼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최소 1년 이상—필자 생각—은 상대방을 경험해 보면서, 때로 다뤄보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해 가면서, 서로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희생적 사랑)인지를 확인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첨언 ①** 미래의 연인이 저절로 당신에게 오지 않는다. 마음이 급하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라.

* **첨언 ②** 한국에서의 결혼 문화에 대하여